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김 예 은

연 규 진[†]

서강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20~30대 여성 387명을 대상으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일반 건강 설문지,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 상태 분노 척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는 SPSS 22.0과 PROCESS MACRO 2.16(Hayes, 2012)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분노가 매개할 때,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수동적 수용은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강화했으며, 폭로는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약화시켰다. 새김-감화와 통합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적극적 헌신의 경우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약화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여성의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상담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차별,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심리적 디스트레스, 여성주의 정체성, 분노

* 본 연구는 김예은(2018)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요약,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다산관 336호

Tel : 02-705-8327 / E-mail : kjyon@sogang.ac.kr

개인은 국적, 젠더, 나이, 종교, 언어, 피부색,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Tajfel(1978)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편향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 권력의 차이로 인해 차별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체성으로는 여성 젠더 정체성을 들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OECD(2017)에 따르면 한국은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나, 성별 임금격차 등의 지표가 OECD 최하위권에 있었으며(OECD, 2017), 한국여성민우회(2017)의 보고서에서 많은 여성들은 노골적인 성차별뿐 아니라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한국여성민우회, 2017). 이 같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사회에 늘 존재했으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점화된 여성혐오 논란(최영지, 2017) 이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인 20~30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신과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주의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권인숙, 2017). 이전 시대에 비하여 한국에서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는 평등해지고 있으나, 현 20~30대 여성들은 성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를 직면한다는 점에서 분노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에서 마주하는 현 20~30대 여성들만의 성차별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별히,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같

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 주로 일으키는 감정이 분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노 감정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성차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성차별 경험을 재해석하고 분노를 새롭게 인식하며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정체성이 성차별로 인한 분노를 해석하는 인식의 틀이 될 수 있기에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으로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성들은 다양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임금, 승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구조적 성차별이나 성희롱과 같은 명백한 성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이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은밀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미묘한 성차별까지도 경험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17; Sue, 2010). 특히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은 불쾌하고 모욕적이거나 그 형태가 미묘하여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그 특성과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 소개되어 있던 성차별 연구에서의 성차별 개념은 그 형태가 명백히 두드러지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국한되어 있어(김혜숙, 윤소연, 2009) 여성이 실제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묘한 성차별은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에

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인 성차별로, 여성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Nadal, 2010, p.158)을 뜻하며, 기존의 명시적인 성차별뿐만 아니라 미묘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의 성차별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Sue,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통해 여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여성의 활동범위를 집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을 드세다고 규정하는 것, 여성을 남성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Judson, 2014). Judson(2014)은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지금까지의 성차별 척도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가 기존의 명시적인 성차별 척도와 같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두드러진 성차별이 여성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Fischer & Holz, 2007; Pavalko, Mossakowski, & Hamilton, 2003; 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최근 Sue 등(2009)은 미묘한 성차별이 두드러진 성차별보다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묘한 성차별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온건한 태도와 여성이 경험하는 불쾌한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차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응할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인 온건적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명백한 성차별인 적대적 성차별을 받은 여성과 비교했

을 때 무능력함과 관련된 사고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Dumont, Sarlet, & Dardenne, 2010), 이러한 실험 결과는 미묘한 성차별이 명백한 성차별보다 더 해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이전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rthick, 2015; Judson, 2014). 이와 같이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고통스런 반응 내지는 불유쾌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Mirowsky & Ross, 1989). 현재 국내에서는 다중차별을 받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신학진, 2010; 예정은, 2017), 직장 내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한인희, 2015)로 연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성차별주의적 태도(심미혜, 2013; 윤병해, 고재홍, 2006)만을 측정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한국 여성이 실제로 당면하는 일상적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까? 선행 연구자들은 성차별과 여성의 정신건강 사이의 매개 요인으로 자존감(Fischer & Holz, 2007), 통제감(Landry & Mercurio, 2009), 자기-침묵(Hurst & Beesley, 2013), 자기-대상화(McLaughlin,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김은하 등, 2017)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 경험

이후에 분노를 호소하고 있고(곽아람, 2017), 미묘한 성차별이 분노를 야기한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Bosson, Pinel, & Vendello, 2010; Swim et al., 2001), 미묘한 성차별로 인한 분노 감정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연결되는지를 탐색한 실증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여성의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Klonoff & Landrine,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가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분노는 부정의, 권리 침해, 자신과 자신의 신념 및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강하고 불편한 감정이며(Davila, 1999), 동시에 부정의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다(Bernardez, 1988). 따라서 사회적 차별과 분노는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대우와 같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당사자는 공통되게 분노를 호소한다(Miller, 2001). 여성 역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처받고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분노 감정을 느끼며(Miller & Surrey, 1990),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이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갖는 주된 정서가 분노로 나타났다. 예로 여성 대학생이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후 분노와 우울의 정서를 보고했으며(Swim et al., 2001), 양가적 성차별 경험과 정서적 회복 시간의 관계에 대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분노 및 역겨움의 정서로부터 회복하는 데 은밀한 성차별이 명백한 성차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osson et al., 2010).

또한 분노가 억압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분노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여성에게 분노는 사회 문화적 관습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 즉 “금지된 감정(outlaw emotion)”으로 여겨졌기에 억압되는데(Jaggar, 1989), 이럴 경우, 여성은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았다(Miller, 1983). 이같이 여성이 분노 감정을 부인할 경우, 이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Fischer & Good, 2004; Munhall, 1994), 분노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잃게 된다(박경, 2003). 반면, 분노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부정적인 자기개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며, 언어 및 신체적 공격성을 일으키거나, 직업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Deffenbacher, 1992). 더욱이 분노하는 여성은 타인으로부터 ‘히스테리를 부린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Meyers, 1997), 부정적 대인관계로 인한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묘한 성차별은 분노를 유발하고, 분노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분노가 미묘한 성차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분노를 느끼고 이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연결될 수 있으나, 만일 여성이 성차별로 인한 분노를 개인적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대처하게 하는 여성주의 정체성이 발달될 경우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이 성차별로 인한 분노를 재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데 개인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주의(Feminism)의

정의는 시대의 흐름과 사람에 따라 다르나, Hooks(2017)는 여성주의를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으로 정의했다(p.18). 이러한 여성주의자로서의 태도와 가치를 자신의 태도와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여성주의 정체성이다(Downing & Roush, 1985). 여성주의 정체성이 발달하면 여성이 성차별을 당한 상황을 사회 정치적 상황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타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Reederstorff & Levendosky, 2007),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긍정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발달적 과정을 개념화한 Downing과 Roush(1985)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모델을 통해 여성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모델(Downing & Roush, 1985) 5단계 중 수동적 수용(Passive Acceptance)에 있는 여성은 개인적, 제도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쉽게 받아들인다. 폭로(Revelation)에서는 여성이 성차별과 같은 삶의 위기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사회 구조에 속았다는 것으로 인한 분노를 느낀다. 새김-감화(Embeddedness-Emanation) 차원에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성 감수성이 증가하였으나 이와 불일치하는 사회를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기존 문화와 관계가 자신을 억압한다고 여긴다면 그곳에서 탈피하려고 한다. 통합(Synthesis)에 있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긍정적 측면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자신의 특별한 성격 특성으로 통합시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한다. 마지막

으로 적극적 참여(Active Commitment)에 있는 여성은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으로 성 역할의 초월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 변화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척도가 연구자들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면서(Bargad & Hyde, 1991; Moradi & Subich, 2002; Rickard, 1989), 여성주의 정체성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넘어가지 않으며(Hansen, 2002; Moradi & Subich, 2002), 개인의 하위 요인을 종합하여 한 개인을 하나의 단계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보다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dimension)이라는 용어(Fischer & Good, 2004)를 사용하고자 한다.

비록, 직접적으로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여성주의의 분노 경험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해당 관계를 인지적 관점과 행동적 관점으로 나누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주의 정체성은 분노 경험의 귀인을 살필 수 있는 인식의 틀(cognitive framework)이 되기 때문에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Landrine & Klonoff, 1997). Weiner(1985)에 따르면 분노 감정은 나에게로 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다. 만일 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처우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개인은 대부분 그 사람에게 화가 날 것이나, 그것이 자신을 향하게 될 경우 개인은 대부분 자신에게 화가 나게 된다. 혹은, 부정적인 대우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분노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가져가기보다 사회적 차별로 가져가게 된다(Hansen &

Sassenberg, 2006). 개인이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차별의 인지적 귀인을 달리 할 수 있듯이 여성이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분노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Moradi & Subich, 2002). 선행 연구에서는 수동적 수용 차원의 경우 성차별 경험 이후에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oradi & Subich, 2002), 이는 성차별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없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Landrine & Klonoff, 1997). 즉 Downing과 Roush (1985)가 제안한 여성주의 정체성의 상위 단계 (통합, 적극적 헌신)가 높은 경우, 성차별 경험에 대한 분노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으나, 성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할 때에 여성주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하여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귀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반면 여성주의자 정체성의 하위 단계(수동적 수용)의 여성은 성차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스키마의 부재로 삶에서 성차별 경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타인의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은 자신이 부족하고 역겨운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게 되어 결국 자기 조소를 하게 될 수 있다 (Landrine & Klonoff, 1997).

둘째, 여성주의 정체성은 분노 감정에 대한 표현과 대처를 달리 할 수 있기에 각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관계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수동적 수용과 같이 여성주의 정체성 인식 수준이 낮은 경우, 성차별로 인한 분노 경험에 대한 인식의 틀이 없어 적절한 분노 표현을 하기 어렵고 분노를 억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으로 예

측된다. 분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분노 표현 양식 중 억압이 우울과 죄책감,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해왔다(Kopper & Epperson, 1996). 또한 국내의 화병 연구를 통해서도 수동적 수용의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화병에 대한 선행 연구는 화병은 한국의 문화 심리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분노 증후군으로(김종우, 2004), 분노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억제하면서 발생한 병이라는 점(조흥건, 2002)에서 수동적 수용 차원이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화병 진단 대상의 80%가 여성일 뿐 아니라 화병의 유병 원인이 남편의 외도 및 폭행, 시댁과의 갈등으로 나타나(전경구, 김종우, 박훈기, 1998), 화병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여성이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분노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억압하여 생긴 심리적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선희, 2013). 또한 폭로의 경우 성차별 세계에 대한 의식화가 두드러지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분노 경험이 분노 표출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분노 표출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야기해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Fischer & Good, 2004). 새김-감화의 경우 역시 성차별적 세계에 대한 분노에서 조금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지만, 남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좋은 남성 혹은 나쁜 남성으로 구분하게 될 수 있기에, 남성 지인과 대인 관계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McNamara & Rickard, 1989). 따라서 분노의 인식은 뚜렷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표현과 상호작용이 어려워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보호적인 조절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 적극적 헌신 차원의 경우 분노를 여전히 느끼지만 분노 표현을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Klonis, Endo, Crosby, & Worell, 1997)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적극적 헌신의 특징인 사회 변화에 대한 헌신은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Watson & Grotewiel, 2016). 지금까지 여성주의 정체성이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단계는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강화하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통합, 적극적 헌신은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약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 경험은 분노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분노 감정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조절효과를 가정하여,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서 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는 조절 변인으로서 강화 효과를,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서 통합, 적극적 헌신은 약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령이 만 20세~39세이면서 젠더가 여성인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38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나이는 최저 만 20세에서 최고 만 38세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4.1세(SD=3.4)였다. 젠더는 여성이 387명(100%)으로 전체 응답자가 여성이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가 332명(85.8%), 양성애가 36명(9.3%), 동성애가 1명(0.3%), 무응답이 12명(3.1%), 기타가 6명(1.6%)이었다. 연인과의 관계는 미혼(비혼)이 357명(92.2%), 기혼이 15명(3.9%), 기타가 15명(3.9%)로 상당수가 미혼(비혼)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259명(67%), 사무직, 관리직이 39명(10.1%), 서비스업이 7명(1.8%), 기능직, 일용직이 2명(0.5%), 전문직이 31명(8.0%), 무직(실직, 퇴직)이 32명(8.3%), 기타가 17명(4.4%)이었다. 자신에 대하여 지각한 경제적 수준은 '상'이 9명(2.3%), '중상'이 73명(18.9%), '중'이 169명(43.7%), '중하'가 104명(26.9%), '하'가 32명(8.3%)이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25명(32.3%), 전문대학교 졸업이 8명(2.1%), 대학교 졸업이 187명(48.3%), 석사 졸업이 28명(7.2%), 박사 졸업이 2명(0.5%), 기타가 37명(9.6%)이었다.

측정도구

미묘한 성차별 경험(Gender Microaggression

Scale: GMS)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Capodilupo와 Torino(2012: Judson, 2014에서 재인용)가 개발하고, Judson(2014)이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이란 “짧고 일상적인 언어, 행동 또는 환경적인 모욕(의도적이든 본의가 아니든)으로 여성에 대한 적대적, 경멸적, 부정적인 성차별적 경멸과 모욕감을 전달하는 것”이다(Nadal, 2010, p. 158). 추가적으로 번안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5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위하여 χ^2 검정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Boomsma, 2000; Kline, 2011). χ^2 검정의 유의도는 $p < .001$ 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으나 RMSEA의 경우 본 척도는 .081로 보통 합치도로 나왔다(Browne & Cudeck, 1993). SRMR의 경우 .08 이하면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하는데(Hu & Bentler, 1999), 본 척도는 .0632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적합도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는 RMSEA와 SRMR이 적절하였으므로 본 척도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에는 총 일곱 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 6문항(예: “남성들은 내가 살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화 5문항(예: “내가 모르는 남성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적이 있다.”), 자기주장에 대하여 혹독하게 여김 5문항(예: “내가 남성 동료나 권위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나는 드센넌으로 취급당한 적

이 있다.”), 외모에 대한 압박 3문항(예: “나는 내가 더 날씬해질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키는 광고를 매일 접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 4문항(예: “남성들은 종종 내가 언제 결혼을 할 것인지 묻곤 했다.”), 성차별의 부정 3문항(예: “남성들이 나에게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부장적 직업 기대 7문항(예: “나는 남성 동료가 발전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지난 일 년 간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차별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평가한다. 척도는 5점 Likert식(1=전혀 없었다, 5=항상 일어났다)이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서 더 많은 성차별 경험을 한 것을 의미한다. 하위척도의 신뢰도로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가 .72, 대상화가 .74, 자기주장에 대하여 혹독하게 여김이 .90, 외모에 대한 압박이 .90,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가 .81, 성차별의 부정이 .75, 가부장적 직업 기대가 .84, 전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는 .93의 신뢰도를 보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General Health Questionnaire -12: GHQ-12)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와 Hillier(1979)가 만들고 박종익, 김영주, 조맹제(2012)가 번역 및 축약한 일반 건강 설문지를 사용했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Veit와 Ware(1983)는 우울, 불안, 행동 및 감정의 통제 불가를 제안한 바가 있다. 한국판 일반 건강 설문지에서도 정신건강의 하위 요인이 우울, 불안, 사회적 역기능으로 나타나, 일반 정신 건강 설문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차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Finch, Kolody, & Vega, 2000; Noh & Kaspar, 2003)에서는 우울만을 단일하게 정신건강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사회적 역기능을 의미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개념을 통해 여성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살피고자 한다.

일반 건강 설문지는 우울 및 불안 7문항(예: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낀다.”)과 사회적 역기능 5문항(예: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이다. 최근 2-3주 동안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응답한다. 긍정 문항 5개는 역채점하며, 총 12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이 큰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 .83, 사회적 역기능 .82, 전체 척도가 .89로 나타났다.

분노(State Anger,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STAXI-K)

분노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와 동료들(1988)이 개발하고 전경구, 한덕웅 및 이장호(1997)가 번안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에서 상태 분노(State Anger)를 사용했다. 본 척도에서 상태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적 및 생리적 상태의 분노로 정의된다(Spielberger et al., 1988). 척도는 총 10문항(예: “나는 짜증을 느끼고 있다.”)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응답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분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Feminist Identity

Composite: FIC)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Fischer 등(2000)이 Downing과 Roush(1985)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모델을 바탕으로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는 총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동적 수용 7문항(예: “나는 남자는 남성적이고 여자는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폭로 8문항(예: “나는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믿도록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새김-감화 4문항(예: “나는 여성학에 큰 관심이 있다.”), 통합 6문항(예: “나는 나의 독특한 개성과 나의 여성적인 특성을 조화시켰다고 믿는다.”), 적극적인 헌신 8문항(예: “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평등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으로 총 33문항이다. 척도는 5점 Likert식(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러하다)이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했다. 각 하위 척도를 합산하여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을 각각 따로 조절 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수동적 수용이 .96, 폭로가 .87, 새김-감화가 .88, 통합이 .71, 적극적 헌신이 .85로 나왔다.

추가적으로 번안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5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위하여 χ^2 검정,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사용하였다(Boomsma, 2000; Kline, 2011). χ^2 검정의 유의도는 $p < .001$ 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으나 RMSEA는 .063으

로 괜찮은 합치도로 나왔다(Browne & Cudeck, 1993). SRMR은 .08 이하면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하는데(Hu & Bentler, 1999), 본 척도는 .0797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적합도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는 RMSEA와 SRMR이 적절하였으므로 본 척도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나이, 생물학적 성별, 성적 지향, 현재 연인과의 관계, 종교, 직업, 경제적 수준, 최종 학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개 선택지에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선택지의 숫자가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 심리적 디스트레스, 여성주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

설문은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20~30대 여성을 모으기 위하여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과 온라인 카페를 통하여 표집하였다. 대학별 커뮤니티의 게시판과 취직 관련 인터넷 카페(예: 스펙업), 여성 관련 인터넷 카페(예: 레몬테라스)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대학에는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학 3곳과 지방 소재의 4년제 국립대 1곳이 포함된다. 설문지는 참여자가 연구 설명서를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되었으

며, 설문을 시작하면서 연령과 성별을 응답하고 연구대상자 조건에 부합할 시 설문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설문은 연구 동의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일반 건강 설문지, 상태 분노 척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실시 전에 3명의 석사 재학생에게 문항이 잘 읽히는지를 확인했고 약간의 오타와 편집을 수정했다. 평균 설문 응답 시간은 약 18분이었다.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와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의 변안은 Brislin(1970)과 김아영, 임은영(2003)의 척도 변안 연구에서 제안한 역 변안 절차를 사용했다. 연구자가 최초 한국어로 변안한 뒤, 각각 심리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중 언어 사용자 1명이 역 변안하였고, 상담 및 임상심리학 석사 과정 재학 중인 이중 언어 사용자 1명이 역 변안된 척도와 원본 척도에 대하여 각 문항을 비교하여 Likert 5점 척도(1=Not at all, 5=Completely)로 문항 간 유사성을 평정하였다. 평정 결과 3점 이하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 변안자와 평정자가 논의를 통하여 재수정하였다. 수정안은 상담 및 임상 석사 과정 재학 중인 이중 언어 사용자,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 및 임상 석사 졸업자 1명과 논의를 거쳐 확인 후 최종 확정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SPSS Macro Process 2.16, AMOS 25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범위, 빈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AMOS 25를 통해 척도의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변인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SPSS Macro Process를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모든 분석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경제적 수준이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강상경, 권태연, 2008),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공변인(covariate)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모델 4를 사용하여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단순 매개효과를 실시하였으며, 모델 14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를 매개로 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및 간접 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ces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변인들 간의 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특성과 관련성을 알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와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387)

	1	2-1	2-2	2-3	2-4	2-5	3	4
1. 미묘한 성차별 경험(GMS)	-							
2-1. 수동적 수용(FIC)	-.33***	-						
2-2. 폭로(FIC)	.64***	-.39***	-					
2-3. 새김-감화(FIC)	.51***	-.40***	.62***	-				
2-4. 통합(FIC)	.19***	-.024	.31***	.38***	-			
2-5. 적극적 헌신(FIC)	.39***	-.40***	.52***	.61***	.54***	-		
3. 분노	.40***	-.13*	.34***	.24***	.07	.20***	-	
4. 심리적 디스트레스(GHQ)	.20***	.05	.17**	.08	-.20***	-.12*	.48***	-
평균	2.71	1.84	3.62	3.56	3.46	3.72	1.49	2.08
표준편차	.59	.59	.79	.89	.59	.61	.53	.55
왜도	.16	.70	-.41	-.31	-.24	-.40	1.70	.53
첨도	-.33	.21	-.40	-.24	.45	.44	2.99	-.06

주. GMS=미묘한 성차별 경험, FIC=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GHQ=심리적 디스트레스.

*** $p < .001$, ** $p < .01$, * $p < .05$.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절차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경제적 수준을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분노가 높고($\beta=.35, p<.001$), 분노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47, p<.001$). 10,000개의 부트스트래핑 표본에 입각한 간접 효과($\beta=.16$)의 95% 신뢰구간은 [.11, .22]로 둘 다 0보다 크게 나타나,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노와 독립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beta=.01, p<.83$).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 (2012)가 제안한 조건적 간접 효과를 검증했다. Hayes(2015)는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이 유의미할 경우, 조건적 간접 효과가 조절 변인의 값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수준에서 측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을 통해 조절된 매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건적 간접 효과와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부트스트래핑은 효과 크기를 알기 위하여 큰 사이즈로 재표본 추출을 실시하여 간접 효과 크기를 측정하며, 이에 따라 간접 효과를 각각 측정한다. 부트스트래핑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5% 신뢰 구간을 만든다면, 이는 $\alpha<.05$ 내에서 효과 크기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중 경제적 수준을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측정하였다. 성차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각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으로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4를 실시하고, 표 2와 표 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분노와 수동적 수용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으로 본 모델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Index=.07, SE=.04, 95\% CI=[.00, .16]$). 수동적 수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건적 간접 효과가 더 강해졌다. 그림 1의 (a)는 여성주의 정체성 수동적 수용의 수준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수동적 수용은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 1 로 수준을 구분했다. 본 그래프에서는 수동적 수용이 낮은 경우(-1SD)가 수동적 수용이 높은 경우(+1SD) 보다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가 큰 것을 나타냈다. 즉 수동적 수용이 높을수록 분

표 2.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으로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분노	
	<i>t</i>
상수	1.76
ES	3.45***
GMS	8.50***

종속변수: 심리적 디스트레스			
조절변인: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Coef	SE	t
상수	1.25	.27	4.66***
ES	.08	.03	3.25**
GMS	.05	.05	1.15
분노	.12	.14	.85
FIC	-.17	.12	-1.38
분노*FIC	.20	.08	2.57*

조절변인: 수동적 수용		조절변인: 적극적 투쟁		조절변인: 세심감화		조절변인: 통합		조절변인: 적극적 회신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상수	1.25	.27	4.66***	.30	.40	.73	1.25	.44	2.84**
ES	.08	.03	3.25**	.08	.03	3.04**	.05	.03	2.05**
GMS	.05	.05	1.15	.02	.05	.44	.05	.04	1.14
분노	.12	.14	.85	1.06	.28	3.76***	.84	.27	3.09**
FIC	-.17	.12	-1.38	.20	.10	1.91	-.05	.12	-.43
분노*FIC	.20	.08	2.57*	-.15	.07	-2.13*	-.11	.08	-1.37

조절변인: 수동적 수용		조절변인: 적극적 투쟁		조절변인: 세심감화		조절변인: 통합		조절변인: 적극적 회신	
	Index	Boot SE	Boot LLCI	Index	Boot SE	Boot LLCI	Index	Boot SE	Boot LLCI
상수	.07	.04	.00	.16	.03	-.11	-.00	-.04	-.09
ES	-.05	.03	-.11	-.00	.03	-.07	.03	.04	-.12
GMS	-.05	.03	-.11	-.00	.03	-.07	.03	.04	-.12
분노	-.05	.03	-.11	-.00	.03	-.07	.03	.04	-.12
FIC	-.15	.07	-.21	-.04	.05	-.07	.03	.07	-.18
분노*FIC	.20	.08	.00	.16	.03	-.11	-.00	-.04	-.09

주. GMS=미묘한 성차별 경험, ES=경제적 수준, FIC=여성주의 정체성 차원(해당 차원).
 ****p*<.001, ***p*<.01, **p*<.05

표 3.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M, ±1SD)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조절변인: 수동적 수용			조절변인: 폭로			조절변인: 새김-감화			조절변인: 통합			조절변인: 적극적 헌신							
	CIE	Boot SE	Boot LLCI	CIE	Boot SE	Boot LLCI	CIE	Boot SE	Boot LLCI	CIE	Boot SE	Boot LLCI	CIE	Boot SE	Boot LLCI					
-1SD	.13	.04	.07	.21	.22	.04	.15	.32	.18	.04	.12	.26	.19	.04	.13	.27	.24	.04	.17	.34
M	.17	.03	.13	.23	.18	.03	.13	.25	.17	.03	.12	.23	.17	.03	.12	.23	.19	.03	.13	.25
+1SD	.22	.04	.15	.30	.14	.03	.08	.21	.16	.04	.08	.23	.15	.04	.08	.23	.13	.03	.07	.20

주. CIE=조건적 간접효과, Index=Index of Moderated Mediation, L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계수 상한값.

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관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폭로의 경우에도 분노와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Index=.05$, $SE=.03$, $95\% CI=[-.11, .00]$). 폭로의 경우, 폭로의 수준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이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폭로가 낮은 경우(-1SD)보다 폭로가 높은 경우(+1SD)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폭로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분노 수준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정도가 낮아, 폭로는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김-감화의 경우 분노와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Index=-.01$, $SE=.03$, $95\% CI=[-.07, .03]$). 통합 역시 분노와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Index=-.04$, $SE=.04$, $95\% CI=[-.12, .04]$). 새김-감화와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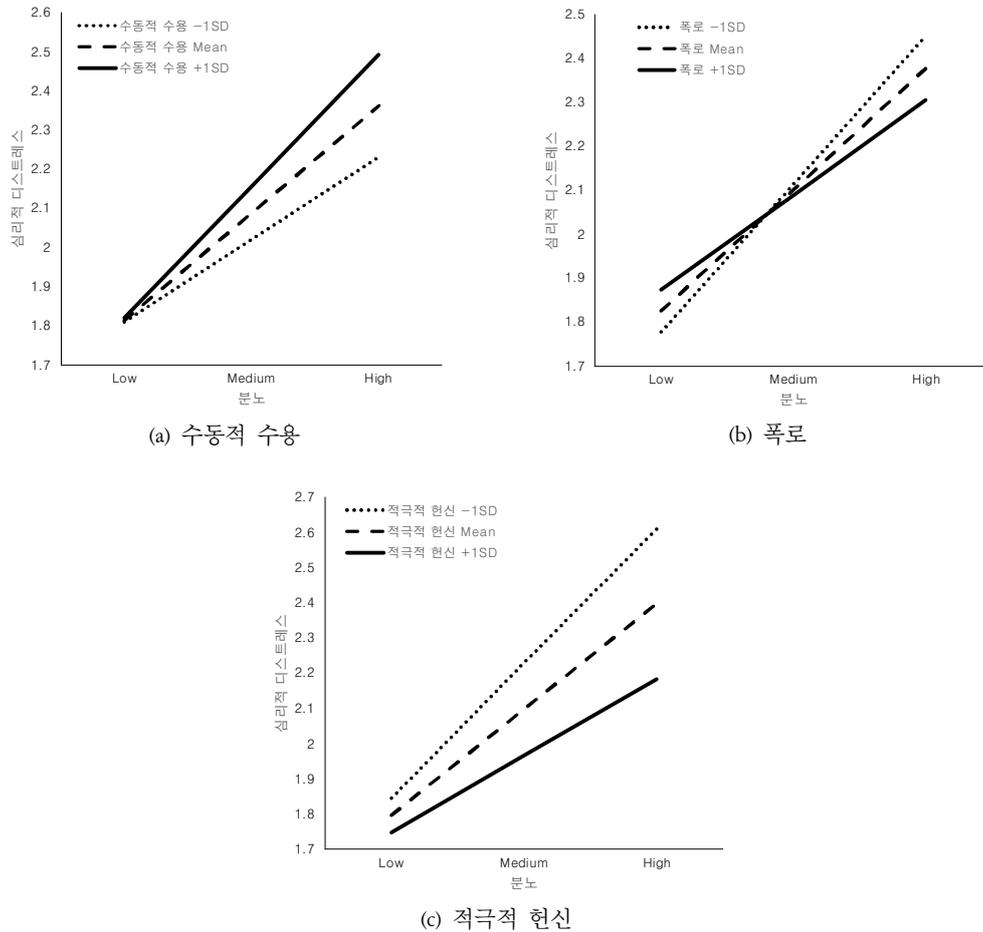


그림 1.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수동적 수용, 폭로, 적극적 헌신의 조절효과

의 경우, 각 새김-감화와 통합의 수준에 따라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분노와 각 새김-감화($\beta=-.04$) 및 통합($\beta=-.11$)의 상호작용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가는 관계를 줄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헌신의 경우 분노와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Index=-.09$, $SE=.04$, $95\% CI=[-.18, -.01]$). 적극적 헌신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건적 간접 효과가 더 약해졌다. 그림 1의 (c)는 적극적 헌신의 수준에 따른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로, 적극적 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가 더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만 20~39세의 여성인 참여자 387명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가 매개할 때,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별 수준이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 수준을 통제했을 때,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분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를 완전매개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 감정을 예측하며(Bosson et al., 2010),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Fischer & Good, 2004)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다양한 감정 중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크게 느끼는데, 이러한 분노 감정의 적절한 표현이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Sue et al., 2009)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수준을 통제했을 때,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조절효과는 차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수동적 수용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수동적 수용 차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정적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Moradi & Subich, 2002), 심리적 안녕감이 약화되었다(Yakushko, 2007). 수동적 수용의 경우 성 고정 관념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을수록 성차별로 인한 분노를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귀인하여 분노를 억압할 수 있고(Landrine & Klonoff, 1997),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회복력이 낮아(Ding, 2012)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폭로의 경우, 그 정도가 높을수록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폭로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로 차원이 높은 여성이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더라도 자신의 분노 경험

을 부조리한 사회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폭로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만 (Fischer & Good, 2004; Saunders & Kashubeck-West, 2006) 부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폭로가 보호요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노와 같은 자기중심적 정서의 표현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기에 (Markus & Kitayama, 1991), 폭로와 같이 분노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표현하는 상태가 개인의 자기 주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Sung, Kwag, & Lee, 2010),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폭로 차원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보다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새김-감화와 통합의 경우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약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김-감화의 경우 지금까지 있었던 주류 문화에서 나와 새로운 집단으로 들어서서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라는 특징과 이전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이 공존하여 혼란을 경험한다는 특징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통합의 경우 성차별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이를 부조리한 사회 탓으로 귀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는 대처를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통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적극적 헌신의 경우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유의미하게 약화시켰다. 이는 Saunders와 Kashubeck-West(2006)의 연구에서 적극적 헌신이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로 적극적 헌신이 성차별로 인한 분노와 그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 헌신의 수준이 높은 여성은 성차별로 인한 분노 감정을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여, 사회 변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박경, 2003)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치료적 개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슈화되지는 않은 미묘한 성차별이 20~30대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논의와 더불어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 또한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Bates(2017)는 일상 중에 여성을 괴롭게 하는 일상의 성차별을 드러내자고 주장했고,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차별 경험을 글로 써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으나 아직 이러한 프로젝트가 소수의 여성에게만 알려져 있고, 사회 전반에 공론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묘한 성차별이 소수의 답변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 미묘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은 분노로 인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미묘한 성차별을 성차별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성차별 가해자에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묘한 성차별이 무엇인지 사회가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미묘한 성차별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받는 피해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여성이 경험하는 분노를 일반화해서 다루기보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여성주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McNamara & Rickard, 1989). 여성주의 상담은 “삶의 주체로서 여성이 지니는 고유한 여성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성차별적인 편견을 극복하도록 평등한 위치에서 개인을 도와주는 것”으로(박경, 2003), 여성주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여성주의 정체성에 따라 치료적으로 개입해야 한다(최해림, 1989; Downing & Roush, 1985). 특별히 본 연구에서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여성주의 정체성인 수동적 수용과 약화하는 역할을 했던 폭로에 적합한 여성주의 상담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수동적 수용 수준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의

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차별로 인한 분노 경험과 이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으며(Downing & Roush, 1985), 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인해 상담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주의 상담자는 수동적 수용 수준이 높은 내담자에게 내담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목표나 기대에 스스로를 동일시한 것으로 인해 유발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있음을 알려주고, 사회적 기대가 아닌 내담자 자신의 목표나 욕구를 가지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박애선, 1994; Forisha, 1981; 최해림, 1989에서 재인용). 또한 폭로의 경우 분노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적 관계를 약화시킴에도 불구하고 폭로는 여성의 심리적 취약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이 건강한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입이 필요하다(Yoder, 2012). 특별히 여성은 자신의 욕구가 타당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노 감정은 여성주의 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의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여성주의 상담은 분노 경험을 통한 정서의 환기 및 사회적 적응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분노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 학교, 경제, 정치와 같은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박경, 2003). 또한 성차별로 인한 분노 감정은 지속되므로(Fischer & Good, 2004),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담자에게도 각 차원 특성에 따른 여성주의적 상담과 함께 분노 감정에 대한 작업 또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20~만 39세($M=24.1$)로 여성 전체를 대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 대상자 모집 결과, 92.2%의 참가자가 미혼(비혼)이었는데(92.2%), 2016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이 30.1세임을 감안한다면(통계청, 2016) 참가자들의 미혼(비혼) 비율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20~30대 전반으로 선정되어, 대학생 이외의 참가자 또한 포함되었다는 장점에도 여전히 20대 초중반의 대학생 참가자(67%)가 많았으므로, 대학생 이외의 집단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이혼 여성 등의 더 다양한 집단을 표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과 달리 직장의 유무, 혹은 직종에 따라 미묘한 성차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여성의 직업 상태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와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에 대한 타당도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는 .93의 Cronbach's α 신뢰도를 보였으나, 한국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도 각 차원(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 별로 .76, .87, .88, .71, .85의 적절한 Cronbach's α 신뢰도를 나타냈지만, 국내의 여성주의 정체성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진 주체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Frable, 1997),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국 여성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적 맥락에 맞는 여성주의 정체성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가 지닌 한계로 여성주의 정체성을 다섯 가지 하위 차원별로 따로 분석했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성주의 정체성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 개인 내의 다양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거나, 종단적 설계를 통해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발달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 연구이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분노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나 이를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반영한 실험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아람 (2017, 9, 28). 2030 그녀들이 페미니즘을 읽는 까닭.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0171.html 에서 검색.
- 강상경, 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32-355.
- 권인숙 (2017, 1, 10). [권인숙 칼럼] 젊은 여성들이 확 바뀌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8175.html> 에서 검색.

- 김선희 (2013). 감정의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상담의 가능성. *한국여성철학*, 19, 5-33.
- 김아영, 임은영 (2003). 타문화권 척도 번안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차들 간의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1), 89-113.
-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종우 (2004). 화병에 대한 한의학의 이해. *의학행동과학*, 3(1), 103-107.
- 김혜숙, 윤소연 (2009). 여성리더의 특성과 효율성: 조직의 성차별 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33-54.
- 박경 (2003). 여성정신건강과 여성주의 치료의 방향. *한국여성학*, 19(3), 215-244.
- 박애선 (199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익, 김영주, 조맹제 (2012). 한국판 일반 건강 설문지의 요인 구조. *신경정신의학*, 51, 178-184.
- 신학진 (2010). 연구 논문: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51-565.
- 심미혜 (2013). 한국인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 및 군복무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365-385.
- 예정은 (2017).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전검구, 김종우, 박훈기 (1998). 화병환자와 일반주부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 *스트레스 연구*, 6(1), 9-24.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조홍건 (2002). *실용 한방정신의학*. 서울: 유진문화사.
- 최영지 (2017). *소비사회와 청년세대의 '여성혐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림 (1989). 여성상담의 과정 및 기술. *인간이해*, 10, 49-57.
- 통계청 (2016). 2016년 혼인·이혼 통계.
- 한국여성민우회 (2017). 2017 성차별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19433> 에서 검색.
- 한인희 (2015). 직장성차별과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71-271.
- Bargad, A., & Hyde, J. S. (1991). Women's studi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2), 181-201.
- Bernardez, T. (1988). *Women and anger: Cultural prohibitions and the feminine ideal* (No. 31). Wellesley, MA: Stone Center Working Paper Series.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3), 461-483.
- Bosson, J. K., Pinel, E. C., & Vandello, J. A. (2010). The emotional impact of ambivalent sexism: Forecasts versus real experiences. *Sex Roles*, 62(7-8), 520-531.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Davila, Y. R. (1999). Women and anger.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7(7), 25-29.
- Deffenbacher, J. L. (1992). Trait anger: Theory, findings, and implication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9, 177-201.
- Derthick, A. O. (2015). The sexist mes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sexist microaggressions experiences and stress scale and the relationship of sexist microaggressions to women's mental health(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에서 인출. (3740179).
- Ding, 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eminist identity and resiliency in women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에서 인출. (3538770).
- Downing, N. E., & Roush, K. L. (1985). From passive acceptance to active commitment: A model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for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4), 695-709.
- Dumont, M., Sarlet, M., & Dardenne, B. (2010). Be too kind to a woman, she'll feel incompetent: Benevolent sexism shifts self-construal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toward incompetence. *Sex Roles*, 62(7-8), 545-553.
- Fischer, A. R., & Good, G. E. (2004). Women's Feminist Consciousness,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37-446.
- Fischer, A. R., & Holz, K. B.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s of collective and personal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54-164.
- Fischer, A. R., Tokar, D. M., Mergl, M. M., Good, G. E., Hill, M. S., & Blum, S. A. (2000). Assessing women's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Studies of Convergent, Discriminant, and Structural Valid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1), 15-29.
- Frable, D. E. (1997). Gender, racial, ethnic, sexual, and class ident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139-162.
- Goldberg, D. P., & Hillier, V. F. (1979).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9(1), 139-145.
- Hansen, N. D. (2002). Reflections on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ory, measurement,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1), 87-95.
- Hansen, N., & Sassenberg, K. (2006). Does social identification harm or serve as a buffer? The impact of social identification on anger after experiencing social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7), 983-996.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에서 검색.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 Hooks, B. (2017).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경아 역). 서울: 문학동네. (원저 2000년 출판). p.1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rst, R. J., & Beesley, D. (2013). Perceived sexism, self-silenc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llege women. *Sex roles*, 68(5-6), 311-320.
- Jaggar, A. M. (1989). Love and knowledge: Emotion in feminist epistemology. *Inquiry*, 32(2), 151-176.
- Judson, S. S. (2014). Sexist discrimination and gender microaggressions: An exploration of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women's experiences of sexism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에서 인출. (367114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lonis, S., Endo, J., Crosby, F., & Worell, J. (1997). Feminism as life raf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3), 333-345.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0.
- Kopper, B. A., & Epperson, D. L. (1996).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2), 158-165.
- Laura Bates. (2017). 일상 속의 성차별 (안진이 역). 서울: 미메시스. (원저 2014년 출판).
- Landrine, H., & Klonoff, E. A. (1997).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valence, consequences, remedies*. Thousand Oaks, CA: Sage.
- Landry, L. J., & Mercurio, A. E. (2009). Discrimination and women's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control. *Sex Roles*, 61(3-4), 192-20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Laughlin, K. L. (2017). Sexism Makes Me Sick: An Examination of Potential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Sexism and Women's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에서 인출. (10259726)
- McNamara, K., & Rickard, K. M. (1989).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feminist therapy with wom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2), 184-189.
- Meyers, D. T. (1997). Emotion and heterodox moral perception: An essay in moral social psychology. In D. T. Meyers (Ed.), *Feminists rethink the self* (pp. 197-218). Boulder, CO: Westview Press.
- Miller, D. T. (2001). Disrespect and the experience of injusti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527-553.
- Miller, J. B. (1983). The construction of anger in women and men. *Work in Progress*, No. 4,

- MA: Stone Center Working Paper Series.
- Miller, J. B., & Surrey, J. (1990). *Revisioning women's anger: The personal and the global*. Work in Progress, No. 43, MA: Stone Center Working Paper Series.
- Mirowsky, J., & Ross, C. (1989). Psychiatric diagnosis as refined measure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1), 11-25.
- Moradi, B., & Subich, L. M. (2002).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measures: Comparing the psychometrics of three instrum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1), 66-86.
- Munhall, P. L. (1994). The transformation of anger into pathology. In P. L. Munhall(Ed.), *In women's experience*(pp.295-322).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 Nadal, K. L. (2010). Gender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n M. A. Paludi (Ed.), *Feminism and women's rights worldwide*(pp. 155-175). Santa Barbara, CA: Praeger.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7). Gender wage gap (indicator). doi: 10.1787/7cee77aa-en [예시 검색](#).
- Pavalko, E. K., Mossakowski, K. N., & Hamilton, V. J. (2003). Does perceived discrimination affect health?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work discrimination and women's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1), 18-33.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ederstorff, J. C., & Levendosky, A. A. (2007). Clinical applications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An illustrative case study. *Clinical Case Studies*, 6(2), 119-130.
- Rickard, K. M. (1989). The relationship of self-monitored dating behaviors to level of feminist identity on the Feminist Identity Scale. *Sex Roles*, 20(3), 213-226.
- Saunders, K. J., & Kashubeck West, S. (2006). The relations among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gender-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2), 199-211.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 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Wiley.
- Sue, D. W., Lin, A. I., Torino, G. C., Capodilupo, C. M., & Rivera, D. P. (2009). Racial microaggressions and difficult dialogues on race in the classroom.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2), 183-190.
- Sung, K. W., Kwag, O. G., & Lee, W. H. (2010). Comparison of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1), 1-11.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Tajfel, H. (1978). Interindividual behaviour and intergroup behaviour.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27-60). London: Academic.
- Watson, L. B., & Grotewiel, M. (2016). The Protective Role of Commitment to Soci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xist Experiences and Self-Silencing. *Sex Roles*, 75(3-4), 139-150.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4), 548-573.
- Yakushko, O. (2007). Do feminist women feel better about their lives? Examining patterns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and women's subjective well-being. *Sex Roles*, 57(3-4), 223-234.
- Yoder, J. D. (2012). Finding optimal functioning in a sexist world: A social justice challeng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8), 1172-1180.

1차원고접수 : 2018. 07. 15.

심사통과접수 : 2018. 09. 27.

최종원고접수 : 2018. 09. 30.

The Relation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nger And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Yaeon Kim

Kyu Jin Yo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if feminist identity dimensions(Passive Acceptance, Revelation, Embeddedness-Emanation, Synthesis, Active Commitment) respectively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when anger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Participants were 387 women in 20s and 30s and they completed the online survey which measured gender microaggressions, feminist identity composite, state anger, and general health.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2.0 and PROCESS MACRO 2.16(Hayes, 2012). As a result, anger mediated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when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moderated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Specifically, Passive Acceptance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ntrast, Revelation and Active commitment weak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Whereas Embeddedness-Emanation and Synthesis ha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Discrimination, Gender Microaggressions, Psychological Distress, Feminist Identity, Anger